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7. 30 | 통권 제26호(2012-14) |

국제금융위기 이후 여성 중간임금계층의 변화*

[요약]

- 최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고용 호조세로 성장과 고용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 우리 경제의 고용탄력성은 0.709로 상당히 높은 수치임.
- 2012년(1~4월) 여성의 취업자증가율은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47.2%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하였는데 이는 50대·60세 이상 고령층의 기여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여성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의 핵심연령계층인 30~40대 연령층의 고용률은 답보상태로 이들 연령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고용의 양적 증가가 고용의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금'을 고려한 중간임금계층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고용이 악화되었던 2009년에 비해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여성 중간임금계층은 2009년 대비 0.9%p 하락하여 남성의 하락폭보다 컸으며, 고용증가폭이 큰 50대 여성의 중간임금계층의 하락폭은 4.1%p나 되는 반면 하위임금계층의 상승은 4.6%p로 나타나, 여성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50대의 일자리가 하위임금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글은 「여성 노동시장의 고용구조」(김복순(2012), 『노동리뷰』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 2012년 4월 현재 저성장 기조 속에서 예상보다 큰 고용증가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고용탄력성은 1/4분기 0.709를 기록함.
 - 이와 같은 고용증가세는 여전히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전 연령층에서도 고용률이 상승하여 2012년(1~4월) 58.3%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함.
 - 최근의 고용증가는 노동수요 측면보다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중고령층의 인구증가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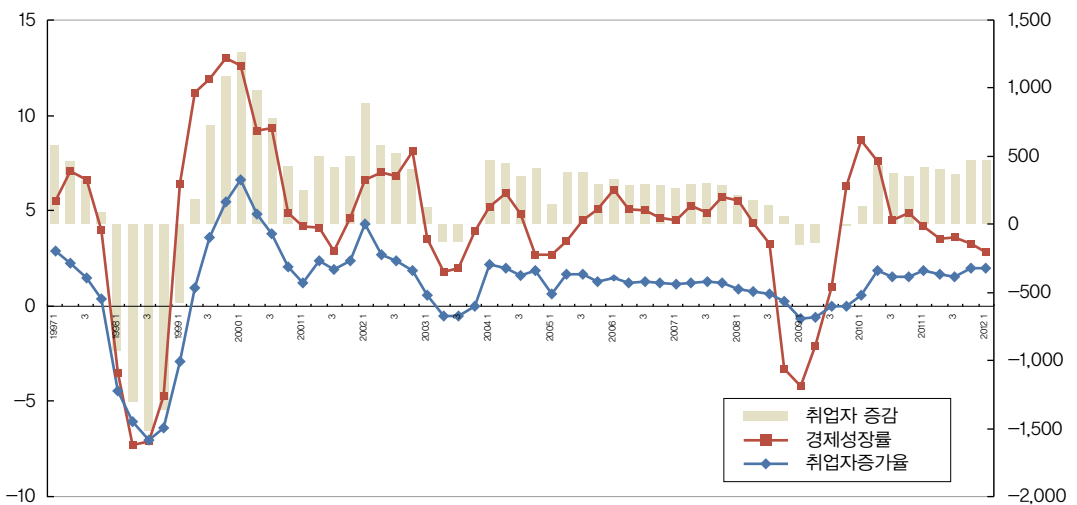
- 2012년(1~4월) 여성의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25천 명 증가하여 남성의 취업자증가율보다 더 높았고, 여성

- 고용률 또한 47.2%로 전년동기대비 0.5%p나 상승함.
 - 여성 고용률(2012년 1~4월) 상승은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기여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여성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대 연령층의 여성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57.3%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의 핵심연령층인 30~40대 연령층의 고용률은 다소 정체되어 있음.

- 특히 30대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좋지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않았던 2009년보다 낮고, 30대 기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또한 하락함.
- 이는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에 가사와 육아 등의 문제로 노동시
장을 떠나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

〈표 1〉 여성의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월)	2008 (1~4월)	2009 (1~4월)	2010 (1~4월)	2011 (1~4월)	2012 (1~4월)
전 체		282	145	-72	323	415	268	205	-157	199	412	464
여성	전 체	119	48	-103	142	177	120	75	-136	65	156	225
	20세 미만	-6	-6	-1	17	7	-7	-5	-14	21	9	0
	20~29세	-32	-46	-73	-32	-28	-44	-35	-79	-39	-45	-15
	30~39세	-37	-22	-106	17	-22	-52	14	-136	8	-10	-15
	40~49세	48	14	-11	10	34	81	-11	6	-16	46	-2
	50~59세	102	102	80	127	130	90	114	85	118	111	142
	60세 이상	45	5	9	3	56	52	-3	2	-28	45	1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월)	2008 (1~4월)	2009 (1~4월)	2010 (1~4월)	2011 (1~4월)	2012 (1~4월)
전 체												
전 체		59.8	59.5	58.6	58.7	59.1	59.0	58.9	57.8	57.5	57.9	58.3
20세 미만		6.6	5.9	5.4	6.1	6.8	6.9	6.4	5.3	6.0	7.0	7.0
20~29세		60.0	59.1	58.2	58.2	58.5	59.9	59.2	57.5	57.8	57.6	58.2
30~39세		72.9	72.9	71.3	72.0	72.2	72.3	72.8	71.0	71.4	71.7	71.9
40~49세		78.3	78.4	77.7	77.8	78.4	77.7	77.7	77.1	76.9	77.6	77.7
50~59세		69.7	70.6	70.3	70.9	71.6	67.7	69.2	69.3	69.5	70.1	71.2
60세 이상		38.1	37.2	36.7	36.0	36.5	35.9	35.0	34.2	32.8	33.4	34.3
여성												
전 체		48.9	48.7	47.7	47.8	48.1	48.0	47.9	46.8	46.5	46.7	47.2
20세 미만		7.3	6.9	6.7	7.7	8.1	8.2	7.7	6.7	7.9	8.4	8.4
20~29세		59.6	59.1	58.0	58.3	58.7	59.3	59.3	57.8	57.9	57.8	58.6
30~39세		54.8	54.7	52.7	53.7	53.7	54.1	54.9	52.1	52.9	53.2	53.3
미 혼		76.9	76.7	75.5	76.7	77.1	75.9	76.8	75.3	76.9	75.0	77.7
기 혼		50.5	50.1	47.9	48.5	48.0	50.1	50.3	47.3	47.7	48.0	47.2
40~49세		64.7	64.7	64.1	64.2	64.9	64.4	63.9	63.7	63.1	64.1	64.0
50~59세		54.8	56.3	56.2	56.9	57.7	52.7	54.6	55.1	55.6	55.9	57.3
60세 이상		28.5	27.8	27.1	26.3	26.6	25.9	25.1	24.4	22.9	23.1	2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기여도

(단위: %)

	여성 고용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6(1~4월)	47.8	0.7	10.8	11.4	12.9	7.2	4.8
2007(1~4월)	48.0	0.6	10.5	11.0	13.2	7.6	5.0
2008(1~4월)	47.9	0.6	10.2	11.0	13.0	8.1	5.0
2009(1~4월)	46.8	0.5	9.7	10.2	12.9	8.4	4.9
2010(1~4월)	46.5	0.6	9.4	10.2	12.7	8.9	4.7
2011(1~4월)	46.7	0.6	9.1	10.0	12.8	9.3	4.9
2012(1~4월)	47.2	0.6	8.9	9.8	12.6	9.9	5.4

주 : 고용률 기여도=해당 연령층의 취업률×해당 연령층의 경활참가율×해당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여성 고용률을 요인분해한 결과, 최근 다른 연령층에 비해 50대·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들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경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여성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 2012년(1~4월) 50세 이상 여성의 고용증가는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자영업의 구조조정 추세가 꺾인 2011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의 증가세에 힘입은 50세 이상 여성의 자영업 증가 등에 기인함.
 - 이들 연령층은 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영업과 임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50세 이상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2012년(1~4월)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가구의 주 소득원인 가구주의 은퇴, 미혼자녀의 교육, 미혼자녀의 미취업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찾아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임.
 - 또한 50세 이상 연령층의 여성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채용이 증가함.

〈표 4〉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층의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월)	2008 (1~4월)	2009 (1~4월)	2010 (1~4월)	2011 (1~4월)	2012 (1~4월)
전 체		146	108	89	130	186	142	112	87	90	156	257
지위	임금근로자	111	99	141	165	131	96	108	91	159	134	180
	상용직	32	48	70	98	77	37	37	54	115	67	90
	임시직	73	49	83	77	50	69	61	31	74	48	121
	일용직	6	2	-12	-10	4	-10	10	5	-30	18	-31
	비임금근로자	35	9	-52	-35	55	46	4	-3	-69	22	77
	고용주	2	17	-2	-5	4	-0	20	2	-6	-0	18
	자영자	22	-15	-41	-11	31	22	-15	-26	-12	5	40
	무급가족종사자	12	7	-9	-20	20	24	-2	20	-51	17	19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	71	49	-69	12	52	75	69	-48	-34	57	50
	배우자	81	59	150	119	127	66	49	132	117	95	198
	기타	-6	-1	7	-1	7	1	-7	4	7	3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고용이 악화되었던 2009년에 비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여성고용은 전년대비 177천명 증가하여 고용률이 48.1%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여 고용의 양적 증가가 컸음.
-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증가가 고용의 질까지 개선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의 질’을 임금을 고려한 ‘중간임금계층’의 개념¹⁾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중간임금계층은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하락하였으며 남성의 하락폭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여성의 중간임금계층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6.5%로 국제금융위기로 고용이 악화되었던 2009년의 37.4%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은 2009년 대비 1.3%p나 증가하여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 중간임금계층은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간당 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 차지하는 계층으로 정의함. 산업중분류·직종중분류 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가 시간당 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 차지하는 경우 중간임금계층으로 계산함.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와 표준직업분류(9차 개정) 중분류는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어 보고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만을 분석함.

〈표 5〉 여성의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 변화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천 명, 전년대비)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2009~20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여성 전체	하위임금계층	35.3	34.9	36.6	1.3	2,400	2,665	264
	중간임금계층	37.4	38.0	36.5	-0.9	2,541	2,653	112
	상위임금계층	27.3	27.1	26.9	-0.3	1,853	1,960	107
50대 여성	하위임금계층	57.7	56.8	62.3	4.6	579	776	197
	중간임금계층	30.6	31.5	26.5	-4.1	307	331	23
	상위임금계층	11.8	11.7	11.2	-0.5	118	140	22
60세 이상 여성	하위임금계층	79.5	80.0	83.5	4.0	342	407	64
	중간임금계층	16.6	17.0	12.9	-3.7	71	63	-8
	상위임금계층	4.0	3.0	3.6	-0.3	17	18	1

주 :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부가조사 원자료.

- 특히 최근 여성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50대·6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중간임금계층은 2009년 대비 각각 4.1%p, 3.7%p 하락하였고, 이들 연령층에서 하위임금계층의 일자리가 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여성고용 변동폭이 컸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중간임금계층의 변화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여성의 고용은 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과 여성 고용증가를 꾸준히 견인해 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함.
 -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중간임금계층이 2009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특히 여성 고용증가폭이 가장 컸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무려 20.5%p나 하락하였으며 하위임금계층은 21.4%p 상승하여 이 업종에서의 일자리는 하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중간임금계층은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1.8%p 증가함. 그러나 이 업종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중간임금계층은 2009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여성의 고용변동이 큰 산업의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월)	2008 (1~4월)	2009 (1~4월)	2010 (1~4월)	2011 (1~4월)	2012 (1~4월)
전 체	120	48	-103	142	177	120	75	-136	65	155	225
제조업	-17	-37	-110	76	37	-34	11	-126	-1	86	-33
서비스업	155	112	66	121	150	167	81	30	161	79	27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2	-30	-137	-44	-50	-68	-46	-92	-56	-89	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40	92	140	149	140	23	79	133	115	175	88
교육서비스업	21	29	42	-24	-70	46	24	11	60	-130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7〉 여성의 고용변동폭이 큰 산업별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 변화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2009~20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제조업	하위임금계층	28.5	32.1	33.2	4.8	279	357	78
	중간임금계층	53.5	50.8	44.0	-9.6	524	473	-52
	상위임금계층	18.0	17.1	22.8	4.8	176	245	6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하위임금계층	72.1	70.7	69.6	-2.5	1,273	1,223	-50
	중간임금계층	26.0	28.0	27.8	1.8	459	488	29
	상위임금계층	1.9	1.3	2.6	0.7	34	46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등	하위임금계층	3.5	6.4	24.9	21.4	26	255	229
	중간임금계층	94.4	88.3	73.9	-20.5	702	757	55
	상위임금계층	2.1	5.3	1.2	-0.9	16	13	-3
교육 서비스업	하위임금계층	10.3	10.4	11.3	1.0	100	102	2
	중간임금계층	19.4	8.8	19.1	-0.3	188	173	-15
	상위임금계층	70.3	80.8	69.6	-0.7	683	630	-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최근 여성 고용의 양적 증가는 고용의 질이 개선된 고용의 증가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여성의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괜찮

은 일자리보다는 하위임금계층이 속해 있는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성의 고용은 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과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2012년 예상 밖의 고용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핵심계층인 30~40대 연령층에서의 경력단절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여성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향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 입안 시 시사하는 바가 큼.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eesaram@kli.re.kr / 02-3775-5579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